필라델피아 한인천주교회

Holy Angels Parish of Archdiocese of Philadelphia
www.philaholyangels.org

7000 Old York Road, Philadelphia, PA 19126 • 사무실 (215) 927-1662 • FAX (215) 224-6615
주임 신부 : 정대웅(요한보스코) • 보좌 신부 : 김찬미(가비노)
사목회장 : 서영찬(프란치스코) 267-471-9048 • 연령회장 : 하동한(아오스딩) 267-616-88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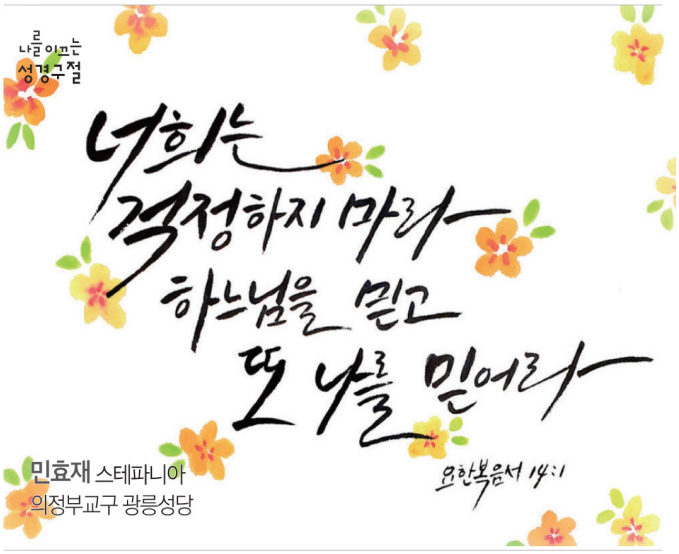
Mass		성사 · 면담	
Weekday	PM 8:00 (Tuesday · Thursday)	유 아 세 례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후 7:00
Saturday	PM 8:00	축성 (차량, 집)	항 시 가 능
Sunday	AM 7:00, 10:00(교중)	고 백 성 사	미사 시작 전 20분
	AM 11:30 (Sunday School Vacation until Jan. 26)	혼 인 면 담	3개월 전 사무실로 신청
	PM 5:00 (청년 미사)	신 앙 상 담	항 시 가 능

오늘의 전례

입당 성가 : 55 착하신 목자
제 1독서 : 사도행전 2,14ㄱ.36-41
화 답 송 :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제 2독서 : 베드로 1서 2,20ㄴ-25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
복 음 : 요한 10,1-10
봉헌 성가 : 340 봉헌 512 주여 우리는 지금
영성체송 : 착한 목자, 당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셨네.
당신 양 떼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네. 알렐루야.
성체 성가 : 504 우리와 함께 주여
164 떡과 술의 형상에
파견 성가 : 129 알렐루야 노래하자

미사 지향

		지향자	봉헌자	지향내용
오전 10시	연	백영기(안드레아)	가족	영원한 안식
		박순권(카타리나)	가족	
		김정용(레안데르)	가족들	
	생	이준영(멜키올)	가족	건강 회복 주님 은총 축복
		윤혜리(그레이스)	윤상원	축 생일 건강 축복



생명의 말씀

나는 양들의 문이다.’ (요한 10,7)

어린 시절 우리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자주 부르시곤 했습니다. 부르시는 목적은 대부분 심부름이었고 그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신나게 노래 부르며 하는 심부름이 있는가 하면, 마지못해 구시렁거리며 하는 심부름도 제법 있었습니다. 당연히 대가도 없었습니다. 부모님을 도와드렸다는 뿌듯함에 기분이 좋은 경우도 있었지만 가끔은 꾀를 부려 못 들은 척하거나 숨어 있다가 혼이 나고 기분도 엉망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수고했다며 맛있는 간식이나 심지어 용돈이라도 주실라치면 그 기분 최고였지요.

사실 우리는 부르심에 익숙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일상이 부르심과 응답의 연속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선생님들은 제자들을, 윗사람들은 아랫사람들을 부릅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고 친구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상대를 부를 때는 무엇인가 용건이 있다는 뜻이기에 가끔 그냥 불렀다는 이들을 우리는 싱거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느님과 나 사이에는 어떨까요? 하느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느님과 나 사이에도 부르심과 응답은 멈추지 않습니다. 나를 부르시는 하느님의 목소리가 성소라면 하느님을 부르는 나의 목소리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부르심에 “네,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는 응답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싱거운 분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원하시는 뜻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는 그것을 사제 성소, 수도 성소, 혼인 성소 등으로 구분할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부르시는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는 귀가 열려있고, “네. 여기 있습니다”라고 응답하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 우리는 신앙의 감각(sensus fidei)을 키워야 합니다. 감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어떤 분야에서든 차이가 있게 마련입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앞에서도 그 목소리를 알아듣고 그 뜻을 받아들이는 정도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감각을 키워주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나는 양들의 문이다’(요한 10,7)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또한 그분은 ‘나는 착한 목자다’(요한 10,11)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분께 시선을 고정한 채 말씀을 듣고 빵을 나누며 함께 머무르십시오. 그러면 뛰어난 감각을 얻게 될 것이고 용기를 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신앙의 모범이시고 하느님의 부르심 앞에 선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를 일깨워 주시는 길잡이와 같은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도움으로 여러분 모두 성소 안에 담겨진 보화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이성우 요셉 신부 | 성소국장

♡ 금주의 영명 축일자 – 축하합니다!

5월 4일	**캐서린** : 이가람
5월 5일	**안젤로** : 성준용 **율리아** : 백승숙
5월 10일	**글로리아** : 이나영 한형숙 김민아 백태순 이준화 정수현

공지사항 · 공동체 소식

♡필라델피아 대주교님 Nelson J. Perez 공지 사항입니다

필라델피아 교구 내 모든 성당은 평일, 주일 모든 미사는 추후 다시 공지가 있을때까지 잠정적으로 중단합니다

성당에서 미사는 없지만 매 주일 오전 11시 live streaming broad cast (라이브 방송)으로 대주교님이 미사를 집전하십니다

필라 교구 웹사이트 http ://archphila.org covid 19/나 Archbishop Perez's Facebook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우분들께서는 코로나 19 극복을 청하는 기도와 묵주 기도를 각자 바쳐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증 모으기 안내

한아름과 식당 영수증은 성당에 미사가 없는 관계로 당분간 날짜에 관계없이 모아서 성당 입구에 있는 영수증 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씨 : 물건 구입시 성당 번호 **"89020"**이나 **"성당"**이라고 말하면 영수증에 대한 수익금이 성당으로 적립됩니다.

교우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식당 영수증 모으기 안내

본가 , 서라벌, 토담골, 뮤타, 코리아 가든, 코리안 바베큐, 상하이, 코코카페, 종가집, 고향산천, 5가 파리 제과, 고기 BBQ(옛한촌), 수라, 소 코리안 그릴(옛힐링포차) 꽁트 헤어 살롱 영수증의 3% 수익이 됩니다.

* 위의 식당 명단에 이름이 없는 곳은 영수증 수익금을 주지 않습니다

하느님께 바치는 교무금 납부는 가장 먼저, 제 달에, 기쁘게 봉헌합시다!